

■ G8 정상회담 개최

○ 오늘부터 3일간 계속되는 G8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문제도 다루어질 예정임

- 오늘부터 일본 오키나와 나고에서 미국, 일본, 프랑스, 러시아, 캐나다, 영국, 독일, 이태리 및 유럽집행위원회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G8 회담이 시작됨
- 주요 의제는 유전자변형 식품 및 전염병 방지에 대한 대응책과 정보기술의 확산 방안임
- 환경문제로는 기후변화, 산림파괴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에 대한 기금 조달 문제 등이 다루어질 예정임

○ 일본에서는 GMOs¹⁾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제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

- 모리 총리는 미국과 유럽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기술은 정보기술과 함께 21세기 인류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술로 믿고 있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GMOs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
- 하지만 GMOs가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소비자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○ EU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

- 지난 4월, 지속가능개발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추진 방향이 이번 G8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져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

1) GMOs (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) : 유전자 변형 생물

○ 미국은 환경성을 국제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는 수출신용기관들이 환경지침을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임

- 미국은, 최근 수년간 환경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수출입은행처럼 수출신용기관들은 보다 강력한 환경 지침에 따라 기금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임
-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,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에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임
- IBRD, IFC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구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지침 중 최소한의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된 환경지침서의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

○ 그린피스 등 NGOs는 G8 정상회담 결과의 이행에 대한 불만을 표명함

- NGOs는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에 대한 교역 금지가 1998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‘G8 산림 이행프로그램의 실패’라고 비난하고 있으며,
- 특히 그린피스는, G8 정상들에게 그린구매 정책의 채택, 불법 벌목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원조 제공과 오래된 산림 파괴에 이용되는 모든 장려금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

이 광 원(02-3669-4310, kwlee@hri.co.kr)